

### 내실, 감동주는 행정 강조

#### 권영세 안동시장



민선5기 2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이 5월 정례회에서 행복안동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의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 좋은 점과 잘못된 점에 대해 평가를 받아 시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다. 권 시장은 안동의 백년대계를 위해 공무원들부터 대형프로젝트는 시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거품없는 내실행정,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2014년 경북도청 이전사업, 동서 4축(상주-안동-영력) 고속도로 건설, 천

연가스발전소 건설 등 SOC사업과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분양 호조, LNG천연가스 공급을 비롯해 상수도 반값공급, 상습 침수구역 해소를 위한 국·도비 5백억원 확보 등을 꼽았다.

또 경북도청 이전을 위한 각종 보상금도 80%이상 집행돼 먼저 진행된 충남도청 이전 상황과 비슷한 실정으로 2년 뒤 경북도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투단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에는 대해서는 골프장이 급년 말쯤 완공되고 90실 규모의 가족호텔이 완공될 계획이며 큰 규모의 호텔이나 리조트 투자분위의 활발하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사업 마무리로 조성된 낙동강은 늦은 감이 있지만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 왔고 낙동강 벚꽃길은 포장마차 등 음식점을 분리를 처음 시도되었지만 시민들에게 호평받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시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경북바이오산업단지 30만평 조성 후 분양까지 기업유치 경험을 회자

하면서 남은 땅이 없어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동·예천이 도청소재지가 되는 만큼 행정문화도시로서 인근 시군과 함께 상생, 발전해야하는 만큼 시 자체 부지확보가 어려울 경우 인근 시군과 함께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는 사실상 80%이상 분양되었고 과거 2천명 이상 매년 줄었던 인구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7월 중순 부터는 LNG천연가스가 공급되는 등 도시개발시설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다 경북도청이 들어서는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인구유입이 크게 늘어나 안동의 도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 교통망도 신도시와 연결되는 국도 34호선 진입도로가 착공했고 남북 4·5축 고속도로 건설, 동서 4축 고속도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포항과 연결되는 도로도 물론 수송·교리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이 추진 중이다.

앞으로 대구-경북도청 신도시는 1시간, 세종시-경북도청 신도시는 50분 거리로 단축되며 장기적으로 2019년 중앙선복선 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 서울과 안동의 거리는 1시간 18분으로 단축돼 안동은 행정, 문화, 교육 중심지로 발전될 전망이다.

<안동항우신문, 2012. 5. 29. 1면 인용>

### 僕射公派婦女會 2012年 定期總會



△북아공파부녀회에서 권연화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북아공파부녀회(회장:권연화)는 지난 6월 16일(토) 11시 안동시 태화동 장자방 식당에서 자문위원인 파중회 고문과 파중회장단 약간 명을 모신 가운데 201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박춘조 총무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묘소 및 파조단소를 향한 당배에 이어 상담례가 있었다. 이날 권연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북아공파부녀회가 지난 2010년도 창립한 후 2년여 동안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속에 능동적 추진행사(春秋學圃) 및 파조부군의 향사(享祀)와 의경과 현직 경찰관의 위문 등 많은 봉사활동으로 부녀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 주신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다. 앞으로도 서로 화합과 단결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기를 주문하였다.

권계동(權啓東) 파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부녀회원(婦女會員) 모두가 평소에

파조추향(派祖秋享)은 물론 시조(始祖)와 낭중공(郎中公)의 춘추향사(春秋享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 감사하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부녀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권영세(權英世) 안동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녀회원들의 숭조이념과 봉사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화합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문중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2011년도 결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임원개선에 들어가 권연화 회장 및 임원 전원의 유임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기타 토의를 끝으로 회의를 마치고 오찬을 하면서 족의(族誼)를 돈독(敦篤)히 하는 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해산하였다.

<權五翼 派宗會 總務部長>

### 마포종친회 시조묘소 참배



△마포종친회가 시조묘소를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마포종친회(회장 권승구)는 지난 6월 10일 오후 4명이 관공버스편으로 안동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주,파,포 진찰하고 권승구회장의 현직으로 함께 참배했고 이어 하산해 낭중공 단소에서 역시 권 회장 현직으로 함께 참배했다.

일행은 안동시내 만남의광장 부패식당에서 식사를 한후 하회마을 관광을 하고 귀로에 올랐는데 차중에서 권승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일 시조묘소 참배는 매우 뜻깊은 행사로서 태사공의 유덕을 기리는 기회를 갖게됐으며 아울러 족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여 모범된 종친회가 되도록 힘써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주: 마포종친회는 서울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종친회로 권문의 각종행사에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숭조정신과 단합을 보여줌으로써 권승구회장은 대종원총재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권영관>

### 서울산악회 제18차 정총

#### 권영석 회장선출



△서울산악회 정기총회가 수락산에서 열리고 있다.(왼내:신임 권영석 회장)

서울산악회는 지난 6월 17일 오전9시 30분에 수락산에서 40여명이 집결하여 수락산행을 등반하고 총회 장소인 수락산계곡 ‘노간산장’으로 오후1시경 총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무 총무의 사회로 먼저 시조태사공 당배에 이어 서울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권난희 회원 및 금병현 남편과 권오준 회원, 정영숙 가족 등 부부회원에게 권정섭 회장으로 부터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이어 정섭 회장의 인사와 내빈 임원진 소개 이어 차기 임원개선으로 들어가 신임회장 장에 권영석(會 부회장. 추밀공파 34世) 축전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이어 영석 신임회장은 수락(受諾)후 취임인사로 “현재까지 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전임 정섭회장을 비롯 임원진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원로고문 및 회원께서 미려한 재에게 힘을 실어 줘 심히 봉사하라는 체적으로 생각하며 최

선을 다하겠다” 다짐하였다. 이어 총무 총무에 의해 경과 및 결산보고를 마치고 권오성 감사의 감사보고를 마친 후 오찬에서 전임 정섭회장은 “그 동안 회원님들의 후원과 격려에 이 자리를 기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였으며 또한 오늘 선출된 영석 회장은 부회장으로 많은 협찬과 족친 간에 우의가 돈독한 회원으로써 우리 회가 더욱 이익변장 하리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 따른 찬조로써는 신임 영석 회장이 이날 식대비 전액(120만원)과 권영호(회원. 경유회 재직) 축전이 행사기념타물 등 협찬하였고, 또한 권정호 회원 등이 복분자를 제공하였다.

■신임임원진  
△신임회장:권영석 △감사:권종우, 권오찬 △총무:권경탁 △등반대장:권오준, 권오익 <권범준 본원기자>



△영양종친회 정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영기 회장.

### 영양종친회 제45차 정기총회

영양종친회(회장 권영기)는 지난 6월16일 오전11시, 영양 화수정에서 족친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영우 총무부장의 사회로 권영택 영양군수, 권오순행정부군수 소개가 있었으며 이어 권영기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모두는 대화합해 권문발전이 힘

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으며, 권영택군수의 축사가 있었다.

권영근 감사의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결산보고,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으며, 기타 토의로 회의를 마쳤다.

<권혁세 기자>

### 금천종친회 제9차 정총 겸 야유회

금천종친회(회장 권영주)는 지난 5월 20일 관광버스편으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지 장릉 앞 오택회관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대영 총무의 사회로 권영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는 일가 간의 족의를 더욱더 두텁게 하며 공존공생하면서 대동단합해 문화생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어 권영수 부회장의 격려사와 새로 선임된 권석재 부회

장의 인사가 있었다. 권오진 감사의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결산보고로 회의를 마치고 경품추첨이 있었다.

그리고 이날 강원도 영월, 장릉, 청령포, 한반도 지형지구, 고씨동굴 등을 두루 탐방, 관광준계 야유회를 가지면서 그간 도시생활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발산하기도 했다.

<권대영 총무>



△금천종친회 9차 정총에서 권영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밀양종친회 제59차 정기총회

밀양종친회(회장 권태경)는 지난 5월20일 오후 75명이 관광버스편으로 안동시조 묘소에서 주·과·포를 진찰하고 함께 참배했으며, 하산해 안동 태사묘를 알현하고 주변 식당에서 제59차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 인사와 총무의 경과·결산보고로 회의를 마쳤다.

이어 도산서원과 안동담을 탐방하면서, 족친간에 족의를 더욱더 두텁게 했다.

<권영민 밀양종친회장>

### 안동부녀회 정기총회



안동부녀회는 지난 4월1일 오전 11시, 안동시 서후면 명리 안동과학대학 체육관 2층에서 김순옥, 복주교 문을 비롯해 회

장이회장(안동과학대학 이사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총회에 초대되길 김순옥고문, 복주교문이 참석해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는 시조 태사공의 후손으로서 자손의 도리를 다 하면서 문사진작에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 후 기타 토의로 회의를 마치고 좋은 분위기 덕담속에서 폐회했다. <권혁세 기자>

### 울산 함월친목회와 무룡친목회 야유회



△울산 함월·무룡친목회가 삼척해산당공원을 관광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 사회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양 친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관광을 통해 회원 구성은 다르지만 양친목회원 서로가 형제처럼, 자매처럼 허물없이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울산 종친회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데

중추역할을 하자고 당부하였다.

알차고 실속있는 관광코스 하루동안 즐겁고 유익한 여행이 되었으며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번 관광에서 양 친목회의 따뜻한 정과 한 핏줄이라는 느낌을 다시한번 공감하였다.

<홍보부장 권영욱>

### 울산종친회 제26차 임시총회



△울산종친회가 종친회 사무실에서 제26차 임시총회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종친회(회장 권오영)는 지난 6월4일 오후 6시30분, 종친회 사무실에서 권일

<권영욱 홍보부장>

### 울산원연회 야유회



△울산원연회가 거제 장사도 관광을 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원연회(회장 권영배)는 지난 6월 10일 부부동반 31명이 야유회를 가졌다.

권영배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원연회

<권영욱 홍보부장>

### ‘나는 매일 진화한다’ 발간



△권율 미 PBS 방송진행자.

가 자신이 미국 주류로 올라선 과정을 풀

어른 수년간이자 성공기 ‘나는 매일 진화한다’ (중앙북스)를 냈다.

스탠퍼드에, 예일대 로스쿨 졸업, 맥킨지·구글 입사, 오바마 행정부 부국장, 방송인 데뷔라는 이력을 자랑하는 그는 자신의 삶을 압축하는 세 단어로 ‘두려움, 도전, 실천’을 꼽았다.

그는 ‘서바이버’에서 우승한 후 세계 100여곳에서 강연회를 열었다며 “예전엔 사람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는 방법”을 물었는데 요즘엔 ‘나 너무 힘든데 당신은 어떻게 극복했나’를 묻길래 그 대답을 책으로 냈다”고 말했다. <권>